

2. 축사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 교수와 교직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학부모와 가족여러분!

귀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정든 캠퍼스를 떠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제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원이 되신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 35만명 동문을 대신하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성심껏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과 열정과 헌신으로 미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20일에는 400명의 재학생에게 총동창회가 장학금을 드렸는데 그 대표로 나온 분이 “우리는 꿈과 열정으로 학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답사 했습니다. 수년간의 학업을 한시도 쉬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식견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그 결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 나오신 뼈저린 수양이 면면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가 공인하고 존중하고 있는 참된 교육기관이며 여기서 연마된 세계인적 역량이 졸업생 개인개인의 이상을 여하히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의 끝없는 축복과 함께 무한정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을 갖습니다.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적인 국제경제경쟁, 첨단과학기술과 지하자원의 획득이 가위 전시상황을 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있다는 것이 인적자원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 자원마저 고갈하면 빛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유지 됩니까? 하물며 지도층을 점하고 있는 인물이라도 보신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선비의 길을 모독하는

행위는 나라가 쇠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러한데 대한 신진대사적 참신한 인재의 새로운 공급원입니다. 서울대인의 가치는 지성, 겸손, 봉사의 변함없는 철학을 지니고 꾸준히 대를 이어 실천향상시켜 선진사회를 조속히 조성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계인의 능력을 이미 지녔습니다.

세계의 지성인과 세계의 미래를 토의할 수 있어야 아시아의 평화가 확보될 수 있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설계가 이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는 일류대학의 엘리트 졸업생의 놀라운 지성이 국제적 풍운계 역할을 하고 있지요. 미래는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통찰력과 구상력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찬란한 결실을 맺어 자유민주평화통일의 길이 열려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서정화